

+ 찬미 예수님

저스틴 신부님의 6월 6/7 일 (토,일) 미사 강론

한국어 번역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께 드리는 찬미와 영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이 저희에게 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러움 (Envy)

여러분 중 몇몇은 작년에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을 재미있게 감상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연기력이 뛰어나고 제작도 훌륭하지만, 제가 왜이 영화가 좋은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덕적 악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요지는 가난한 가족이 꼼짝하게 살지만, 더 나은 물질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심각하게 거짓말을 하고,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직업을 잃게 하고, 신체적인 해를 끼치고, 물건을 훔치고, 재산을 훼손하고, 살인을 시도하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영화는 이것들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묘사하기 보다는, 그것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 다시 말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와 우리의 문화를 도덕적 악, 특히 시기심을 둔하게 만듭니다. 저 가난한 가족은 영화에서 부유한 가족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부족한데, 그들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악들 저지릅니다.

하느님의 너그러움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부드러움에 대해 경고하는 복음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포도밭 주인은 아침 일찍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들에게 일당을 지불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9시, 정오, 3시, 5시에 나가서 같은 일당을 받는 대가로 노동자를 더 고용합니다. 저녁이 되면 일꾼들은 모두 같은 임금을 받고, 아침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땅 주인에게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퇴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마태20:12). 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그가 불공평 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12배를 받아야 합니다.

- 포도밭 주인이 사실적으로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마태20:13-14). 사실 관계를 정립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온 노동자들은 그들이 벌어들인 공정한 하루 일당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불공평한 비난에 대해 대답했기 때문에, 그는 토론을 공정성에서 관대함으로 바꾸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답은 ‘네’입니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 포도밭 주인은 아무도 속이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속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온 일꾼들의 입장에 있다고하고 질문을 해 봅시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일하고 받기로

합의한 금액을 받았고, 그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뻐할 수 없을까요?

- 만약 그들이 이름도 없고 우리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였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유는 정말로 포도밭 주인을 하느님 아버지라고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일당을 주려는 사람, 심지어 늦게 오는 사람에게도 일당을 주려는 사람입니다.

- 가족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장남인 저는 아침부터 일을 합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와 좋은 관계이고, 그가 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비록 그들이 돈을 번것은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좋은 임금을 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나는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에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부러움을 외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성공이나 번영을 할 때 느끼는 비참함, 슬픔, 상실의 슬픔이나 고통”(Our Sunday Visitor's Catholic Encyclopedia, ed. Fr. Peter Stravinskis, 358). 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형제자매로 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돌아가서, 영화의 예술적 장점이 아닌 도덕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유한 집안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혹은 부도덕하게 재산을 얻었다는 것은 영화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논쟁을 하기위해 부유한 가정은 악하다고 칩시다. 그것이 가난한 가정의 질투와 원한, 그리고 부도덕한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움을 정당화하거나 최소한 부러움에 동조하는 영화의 도덕적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와

영혼에 대한 심각한 걱정거리입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의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오늘날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들 대부분은 삶의 필수품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화인 신데렐라 맨의 3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대공황동안 매우 부유했다가 모든 것을 잃은 권투선수의 실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재정 상태가 기생충의 한국 가족보다 훨씬 더 나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맨 에서 아버지는 아이들이 가벼운 아침이라도 먹게 하려고 아침을 거릅니다. 이 동영상에서, 그의 아들이 가족을 먹게하려고 고기를 훔쳐오고, 그의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그의 아들에게, 아무리 가진것이 없더라도 절대로 도둑질을 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AzOR_EjFvWs).

여기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것에 대해 절대로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 아버지를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 일이 쉽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갈 핑계를 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훔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아시죠?
 - 우리가 2주 전에 도덕적 약속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도덕적 헌신을 해야 합니다.
-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 도둑질을 용납하거나 질투심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떠나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항상 갖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우화는 정말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신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며 하루의 열기를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같은 선물을 받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며, 사랑은 도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난한 한국 가정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 권투선수의 가족은 도덕적인 성실성을 지녔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자매에게 너그러우시니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강론 말씀도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이었기를 기도드립니다.

COVID-19 시기에도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신 모든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제를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